

예능에 교양 더하니 재미도 의미도

중편 예능 시청률 10%대로 ‘경충’

1박2일·무한도전 등 역사 기획 눈길

“재미에 의미를 더하니 히트하네요.”
새해가 열림과 동시에 예능에 교양을 접목한 두 프로그램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훌쩍 경신하며 치고 나왔다.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는 지난 8일 4%, OtvN ‘어쩌다 어른’은 7일 8.7%를 기록했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아쉬울 게 없는 시청률이다. 이들 프로그램에 더해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인 MBC TV ‘무한도전’과 KBS 2TV ‘1박2일’도 잇따라 역사를 소재로 한 기획을 내놓아 시선을 잡고 있다.

◇ “의미있고 맛있는 프로그램”...온가족을 공략한다= ‘어쩌다 어른’의 정민식 PD는 10일 “예전에는 시청자들이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찾았다면 요즘은 재미에 의미를 더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어쩌다 어른’은 7일 신년특집 ‘설민석의 한국통사-식사를 합시다’ 선사시대편을 OtvN과 tvN에 동시 방송해 평균 8.7%, 순간 최고 10.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2015년 9월 시작한 ‘어쩌다 어른’은 지난 1년여 평균 1~2%의 시청률을 기록해왔는데, 단숨에 6~7%포인트나 시청률이 뛰어버렸다. 새해를 맞아 토요일 밤 9시20분으로 편성을 옮긴 전략이 주효한 데다, 스타 강사 설민석 파위가 겹치면서 벌어진 놀라운 결과다.

8일 밤 11시 방송된 ‘뇌섹시대-문제적남자’는 평균 4%, 순간 최고 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2015년 2월 시작한 이래 2년여 2%대에 머물던 시청률이 배 가까이 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대 치대를 중퇴한 가수 김정훈이 출연해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의 이근찬 PD는 “김정훈 씨가 실제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 것, 수학적으로는 엄청 뛰어난 것에 비해 다른 한 편으로는 긴장하고 어려워하는 인간미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재미를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히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이슈를 비롯해 사고방식이나 새로운 관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가족 간 대화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 버라이어티 예능도 ‘역사’를 찾아서 = 온몸으로 웃기는 대표적인 버라이어티 예능 ‘무한도전’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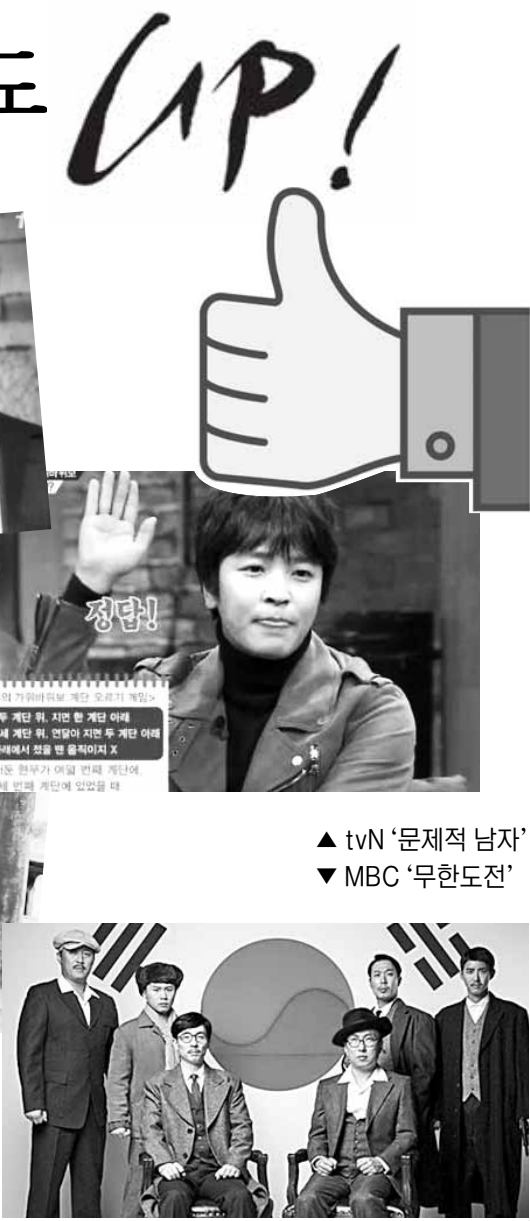
박2일’도 ‘역사’를 찾는다. ‘무한도전’은 최근 ‘역사 X 합함 프로젝트-위대한 유산’을 타이틀로 내세워 우리 역사를 주제로 합함곡 만들기에 도전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음원들은 황광희와 개코의 듀엣곡 ‘당신의 밤’이 지난 1일 멜론, 엠넷닷컴, 지니 등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하는 등 모두 인기를 끌었다. ‘무한도전’은 이에 앞서 2015년 일본강점기 강제징용 현장인 나가사키(長崎)시의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와 다카시마(高島) 탄광, 우도로 마을을 소개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016년에는 미국을 찾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을 짚어보기도 했다.

‘1박2일’은 지난해 3월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기를 맞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대한제국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기 전 마지막 사흘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또 지난해 12월날을 맞아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대왕 세종 특집 나랏말싸미’ 특집을 편성했다.

멤버들이 전철 안에서 세종대왕이 그려진 1만원권 지폐를 놓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며 평소 몰랐던 지폐 속의 숨은 의미를 새겼으며, 하루 동안 외래어를 사용하면 발칙을 주는 게임을 했다.

여주 세종대왕릉역에 내려선 훈민정음 서문을 함께 읽고, 세종대왕릉을 참배한 뒤 세종대왕의 업적을 돌아봤다.



이 두 ‘국민 예능’의 이같은 행보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 “결함기에 머문다”...방송 사고도 =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이 정식 교양 프로그램과 같을 수는 없다. 인문학, 교양, 역사에 대한 “감성팔이다”, “결함기식이다” 등의 지적도 나온다.

방송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6월 ‘어쩌다 어른’은 ‘어른들의 인문학, 조선 미술을 만나다’에서 스타 강사 최진기씨가 조선 미술에 대해 강의하면서 오원 장승업의 ‘군마도’와 ‘파초’ 등을 소개했는데 방송 화면에 나온 두 그림이 모두 다른 작가의 작품임이 밝혀졌다.

방송 관계자들은 예능 프로그램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예능과 교양을 접목하는 시도의 긍정적인 면을 봐달라고 말한다.

MBC ‘무한도전’ 측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한 번쯤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우·강하늘 “우리는 찰떡궁합”

영화 ‘재심’서 연기 호흡

‘썸시봉’ 이후 두번째 만남

“형과 연기하면서 정말 편안했어요. 제가 많은 것을 배웠죠.”(강하늘)
배우 정우(36)와 강하늘(27)이 10일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재심’ 제작보고회에서 서로 주거나 받거나 칭찬을 이어가며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두 사람은 ‘썸시봉’(2015)에 이어 ‘재심’에서 두 번째로 연기 호흡을 맞췄다. 올해 초 함께 출연한 TV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만남이다.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지만 스크린에서는 불꽃 튀는 연기대결을 펼쳤다.

‘재심’은 2000년 발생한 ‘익산 약혼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 약혼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12차례나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다.

당시 범인을 최초 목격한 15살 소년은 경찰의 감압수사에 의해 진범으로 몰려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 소년은 16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화는 이 실화를 모티브로 2000년 살인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가 소년이 용의자가 된 과정 등을 다룬다.

정우는 재심 변호사 준영 역을 맡았다. 처음에는 돈과 명예, 명성을 얻기 위해 변호를 맡지만, 점차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정의로운 인물로 변해간다.

‘히말라야’(2016) 이후 차기작으로 이 작품을 택한 정우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 실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작품 중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영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메이킹 영상에서 촬영 때마다 “한 번 더! (촬영)”를 외치는 열정을 보여줬다.

또 촬영 도중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이마를 40~50바늘 꿰매는 충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영화 ‘동주’(2016)로 충무로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른 강하늘은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현우로 나온다.

/연합뉴스



강하늘·정우

그는 “현우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가 많을 거로 생각했지만, 더 깊이 고민해보니 10년의 세월 동안 억울함과 분노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런 감정에 잠식당해서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현우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현우의 엄마 순임 역은 베테랑 배우 김혜숙이 연기했다.

‘잔혹한 출근’(2006), ‘또 하나의 약속’(2014)을 연출한 김태운 감독이 매가폰을 잡았다.

김 감독은 “한국사회가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영화가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학특선 최태성·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재) 55 한국인의 팔도밥상 스페셜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재)	00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용아> (재)	00 예술론 토론회 30 교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닥터고 스페셜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품지락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다큐 공감	00 비타민 (재)	20 역대요정 김복주 (재)	55 닥터 365
2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3	05 한국인의 밥상 55 튜튼생활제초	00 자동차부착성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2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어사 쿵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코소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동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온수	30 글로볼24 55 트릭 앤 트루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경제 발돋움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VR 신년기획 지붕없는 박물관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방학특집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5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알로하 하와이 천국에서의 휴식, 마우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08:45 최고다! 호기심 천국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토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벨기에 와플과 과일꼬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신극한작업 - 푸드 셰프>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3(재) 14:25 책과 땅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다다쿵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명의(재)	20:40 다큐 오늘 <독계구리 코스타리카블루진> 20:50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의 선물, 네팔 - 천 년 전통의 도사> 21:30 한국기행 <추출수목 그리워라 - 오지의 맛, 참 맛> 21:50 EBS 다큐 프리덤 22:45 국한작업 <멕시코 알로에 수확>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그들이 한국에 살명한 이유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허는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몸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한다. 60년생 다양하게 세분화되면서 체계가 서리다. 72년생 근위부터 해결해야 바로 잡을 수 있겠다. 84년생 성의껏 협조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2, 77	午	42년생 희색이 만연해졌다. 54년생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66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78년생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 90년생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87, 54
丑	49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61년생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이다. 73년생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길함을 볼 수 있다. 85년생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무리한다면 실패할 수다. 행운의 숫자 : 96, 74	未	43년생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55년생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67년생 바야흐로 길성을 향해 진입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 79년생 제대로 보여 줘버려라. 91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3, 72
寅	50년생 성급하게 나서거나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면 성과가 나타난다. 62년생 분할하러 하지 말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74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으리라. 86년생 다 털어놓아야 할 입장에 처한다. 행운의 숫자 : 75, 17	申	44년생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56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68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국면 전환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80년생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37, 65
卯	51년생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새로운 자원을 열 수 있다. 63년생 당탈아 복 받을 수도 있는 판계에 놓인다. 75년생 긴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 87년생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추이를 관망하자. 행운의 숫자 : 31, 16	酉	45년생 유사참이나 증복을 피하는 것이 무방하다. 57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69년생 침착하게 임하라. 81년생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8, 61
辰	52년생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국세이다. 64년생 지금의 추세라면 성공을 확신해도 된다. 76년생 핵심 정곡을 찔러서 처리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88년생 함께하는 아예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60	戌	46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정을 부르리라. 58년생 단순히 보일지라도 실제 내막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0년생 부담스러웠던 점을 털게 될 것이다. 82년생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45, 35
巳	53년생 정해 요소를 제거하라. 65년생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유지하고만 있으면 성과를 거두리라. 77년생 행운의 빛이 비추고 있다. 89년생 재수불공을 올린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51	亥	47년생 분방히 해뒤가 뒤달리 없는 법이다. 59년생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71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상대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4, 0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